



# numbers

vol. 230

## 다음세대 특집 2: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청소년, 동성애 찬성 5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 ② 한국 국회의원 연봉 실태(OECD비교)
- ③ 2023 합계출산율

2024. 3. 5.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청소년, 동성애 찬성 52%!

지난주 넘버즈<청소년의 가치관>편에 이어 이번 호는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룬다.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 '중고등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청소년 조사 자료(예장합동)와 비교하여 청소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중 개신교 청소년과 비개신교 청소년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10명 중 4명은 '매일 무기력한' 상태였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비율은 52%로 절반 이상이었고, 종교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종교가 없는 청소년의 8%에 불과했다. 청소년 세대에도 탈종교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다음세대 특집 리포트]

- ① 청소년의 가치관 (229호)
- ②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230호)**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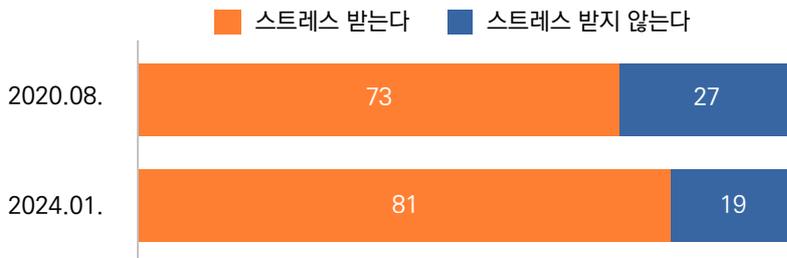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01

## [스트레스와 감정] 대부분의 청소년, 일상 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

-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스트레스 정도를 묻은 결과, 청소년의 대부분(81%)이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있었다. 이는 4년 전 2020년 조사 대비 8%p 높아진 수치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스트레스 정도\* (청소년, %)



※출처

2020.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2020.10.04. (전국 중고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28.-0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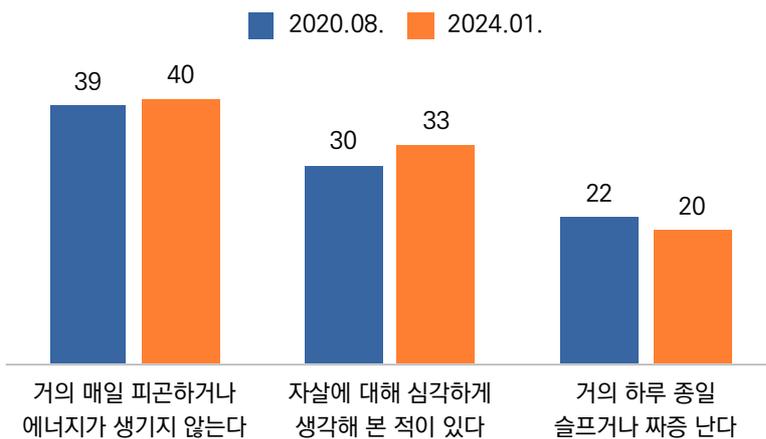
2024.01.: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4점 척도

## 청소년,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0%!

-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몇 가지 진술문에 대한 동의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에 4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무기력함을 느끼는 셈이다. 그 외에 33%의 청소년은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 난다'는 감정적 동요가 심한 경우도 20%였다.
-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4년 사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생활 속 감정(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2020.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2020.10.04. (전국 중고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28.-09.14.)

2024.01.: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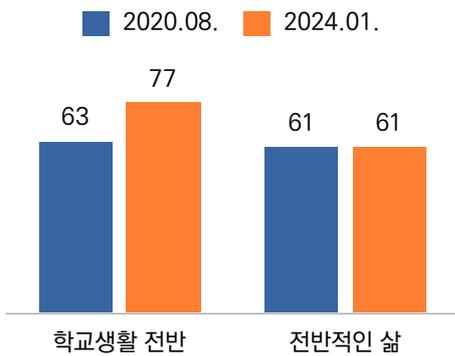
# 02

## [학교 및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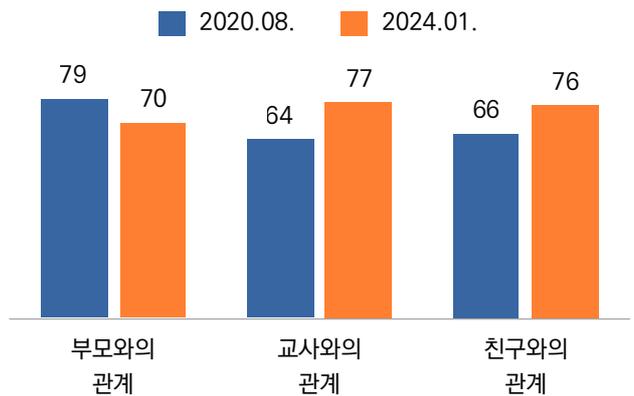
### 엔데믹 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줄고, 학교 만족도 증가!

- 전반적 생활과 관계 만족도를 총 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물었다. 먼저 생활 측면에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77%, '전반적인 삶' 만족도는 61%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조사 대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상승한 반면 '전반적인 삶' 만족도는 그대로였다.
-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2020년 대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는 줄고, '교사', '친구' 관계 만족도는 10%p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학교생활 비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 점이 부모 관계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생활 관련 만족도 (청소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그림] 관계 만족도 (청소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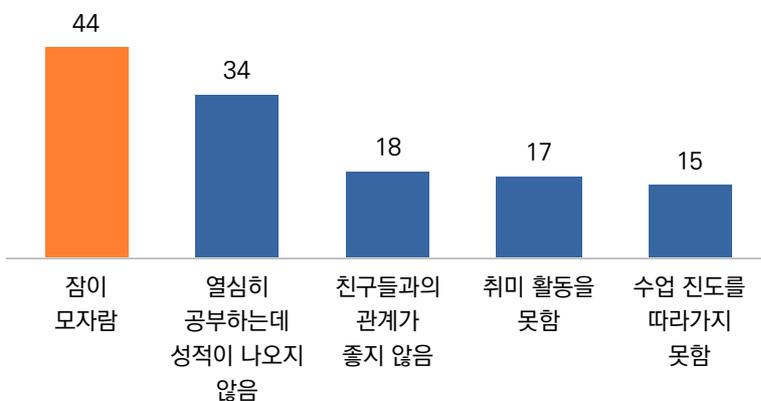
2020.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교학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2020.10.04. (전국 중고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28.~09.14.)  
 2024.01.: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4점 척도

## 청소년 44%, '수면 부족'이 가장 힘들어!

-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 '잠이 모자람'이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데 성적이 나오지 않음' 34%,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 18%, '취미 활동을 못 함' 17% 등의 순이었다.

[그림] 학교생활의 힘든 점 (청소년,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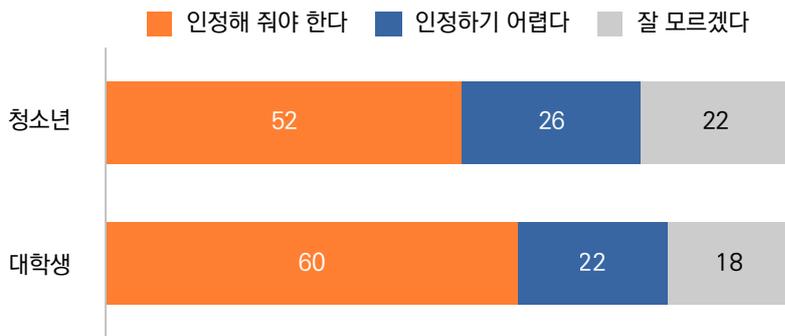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 03

## [동성애 인식] 청소년, 동성애 찬성 52%

- 동성애 인정 여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물었다. ‘인정해 줘야 한다’ 52%, ‘인정하기 어렵다’ 26%, ‘잘 모르겠다’ 22%로 절반가량이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동성애 허용 찬성 비율은 대학생(60%)보다 8%p 낮은 수치이다.

[그림] 동성애 인식: 청소년 vs 대학생 (%)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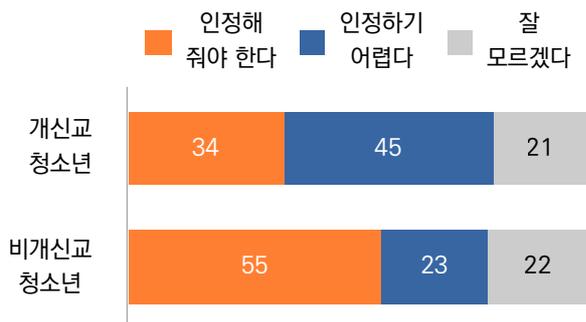
청소년: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대학생: 학원복음화협의회, ‘202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2022.09.29. (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8.17.~08.31.)

## 동성애 인식, 기독 청소년 ‘반대’, 비기독교 청소년 ‘찬성’!

- 동성애 허용에 대한 인식을 개신교 청소년과 비개신교 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개신교 청소년은 동성애 허용 반대(45%)가 찬성(34%)보다 높았고, 비개신교 청소년은 동성애 허용 찬성(55%)이 반대(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성별로 보면 여학생(74%)의 동성애 찬성 비율이 남학생(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동성애 인식: 개신교 청소년 vs 비개신교 청소년 (%)



[그림] 동성애 인식: 남학생 vs 여학생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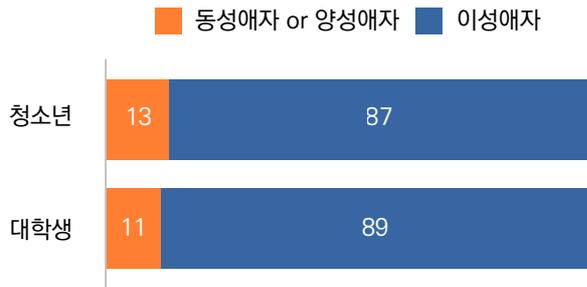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 청소년, 주변에 동성(양성)애자 친구/지인 있다 26%

-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이 어떠한지와 동성애 친구/지인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본인이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13%로 전체 청소년 8명 중 1명꼴이었는데, 이는 대학생의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비율인 11%와 표본 오차 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주변에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청소년 4명 중 1명(26%)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대학생의 비율(28%)과 비슷했다.

[그림] 본인의 성적 취향: 청소년 vs 대학생 (%)



[그림] 동성애 친구/지인 유무: 청소년 vs 대학생 (%)



※출처

청소년: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대학생: 학원복음화협의회, '2022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2022.09.29. (대학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8.17.~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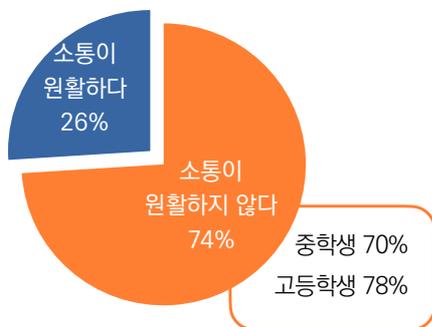
## 04

### [사회 이슈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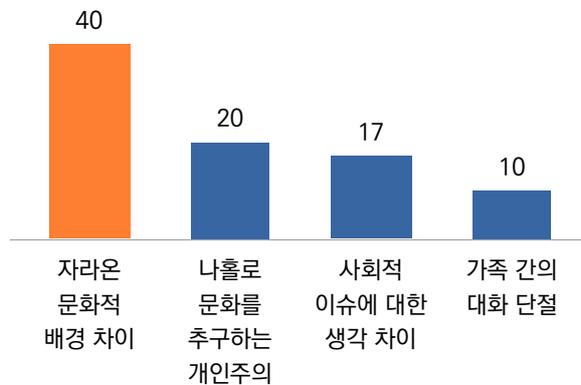
## 청소년 4명 중 3명, '우리 사회 세대 간 소통 원활하지 않아!'

-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원활하지 않다'가 74%로 청소년 4명 중 3명 정도는 세대 간 소통 평가에 있어 부정적이었는데, 고등학생(78%)이 중학생(70%)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았다.
-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는 '자라온 문화적 배경 차이'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홀로 문화를 추구하는 개인주의' 20%,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 차이' 17% 등의 순이었다.

[그림] 세대 간 소통 평가 (청소년)



[그림] 세대 간 소통 원활하지 않은 이유 ('원활하지 않음' 응답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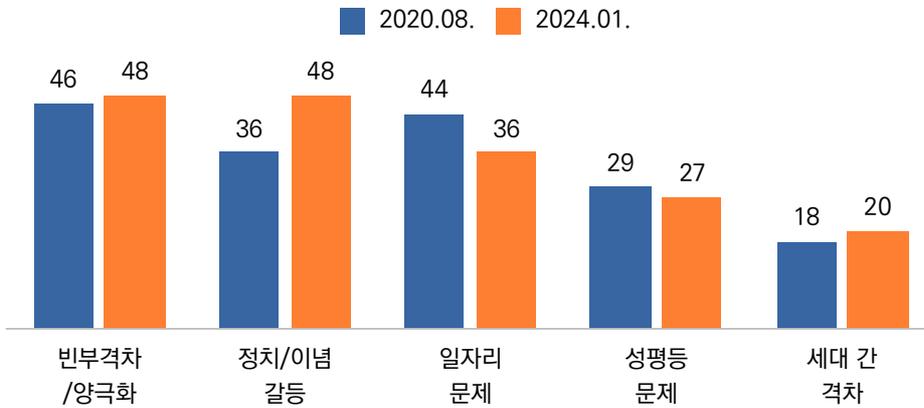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 건강한 한국 사회 걸림돌, '정치/이념 갈등' 크게 늘어!

- 청소년이 생각하는 건강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1+2순위)로는 '빈부격차/양극화'와 '정치/이념 갈등'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일자리 문제', '성평등 문제'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치/이념 갈등' 문제는 2020년 조사 대비 크게(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건강한 한국 사회 조성의 걸림돌 (청소년, 1+2순위, 상위 5위, %)



※출처

2020.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2020.10.04. (전국 중고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28.-09.14.)

2024.01.: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 05

### [종교 현황 및 인식]

## 청소년 무종교인 비율, 성인보다 더 높아!

-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독자적으로 파악한 종교현황을 살펴보면(넘버즈 224호 참조) 전체 청소년 중 종교가 있는 경우는 2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2.4%는 무종교인이라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무종교인 비율이 성인보다 높은 점이 주목된다.
- 개신교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3.6%로 성인(16.6%)보다 낮았다.

[표] 종교 현황 비교 (성인 vs 청소년,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중·고생)
개신교	16.6	13.6
불교	12.4	7.6
가톨릭	7.8	5.7
기타	0.3	0.7
무종교인	62.9	72.4
계	100.0	100.0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2024.01. (만 19세 이상 4,751명, 중고생 700명, 휴대전화 조사, 2023.10.18.-11.01 / 2023.12.28.-2024.1.3.)

## 무종교 청소년, '나에게 종교 필요하다', 8%에 불과!

- 청소년들에게 '본인이 종교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40%, 종교가 없는 청소년의 8%가 본인의 종교 필요성에 동의했다. 종교가 없는 청소년 중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셈이며,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종교 필요성도 4년간 8%p 하락해 청소년 세대로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개신교 청소년의 종교 필요성 인식은 48%로 4년 전 조사 결과 대비(60%) 12%p 크게 하락했다.

[그림] 나에게 종교의 필요성 인식 (청소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2020.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2020.10.04. (전국 중고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28.~09.14.)  
 2024.01.: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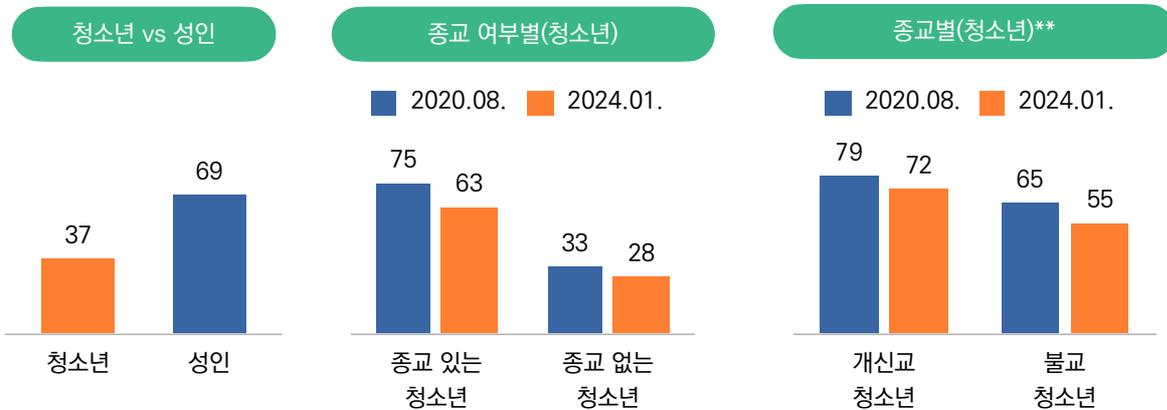
\*4점 척도

\*\*가톨릭 청소년 비율은 사례수가 적어 표시하지 않음

## 청소년의 '우리 사회 종교 필요성' 인식, 성인에 비해 절반 수준!

- 이번에는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의 필요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의 37%가 종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인 응답(69%)보다 절반가량 낮은 수치이다.
- 종교 여부별로 보면 종교를 가진 청소년이 63%로 종교 없는 청소년(28%)보다는 2배 이상 높았지만 4년 전 조사 결과 대비(75%) 12%p 떨어졌다.

[그림] 사람(인류)에게 종교의 필요성 인식 ('매우+어느 정도 필요하다' 비율\*, %)



※출처

2020.0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 2020.10.04. (전국 중고생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28.~09.14.)

2024.01.: 목회데이터연구소, '청소년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에 대한 조사', 2024.02.02. (전국 중고생 700명, 온라인조사, 2023.12.28.~01.03.)

성인: 사림과성김 코디연구소/국민일보,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 2022.04.29.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2.03.31.~04.04.)

\*4점 척도

\*\*가톨릭 청소년 비율은 사례수가 적어 표시하지 않음

‘청소년기’(adolescence)의 어원은 라틴어 ‘adolescere’에서 유래했는데 ‘성장한다’ 또는 ‘성숙되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완성되지 못한 과도기적인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스럽게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고민과 아픔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이다.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청소년은 어느 정도일까? 기독교 청소년은 비기독교 청소년보다 삶에 대해 더 만족해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다음세대에 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결과에서 드러난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다. 최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 대부분(81%)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는데, 13~18세 청소년 고민하는 문제 1위가 압도적으로 공부(51%)<sup>1)</sup>인 것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는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라는 결과가 있다.<sup>2)</sup> 실제로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면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0%,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다’ 33%,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20% 등 육체적 피곤함과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성장의 시기’에 성적이라는 굴레에 매여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 청소년의 삶은 비기독교 청소년과 크게 구별되지 않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 학생(62%)과 비개신교 학생(61%)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역시 차이가 없었다.(개신교 학생 71%, 비개신교 학생 70%) 스트레스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었고 (개신교 학생 78%, 비개신교 학생 81%)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에 대한 동의율은 오히려 개신교 학생(25%)이 비개신교 학생(20%)보다 높았다. 신앙이 주는 평안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위로와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가 청소년의 필요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게 종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37%의 청소년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4년 전 조사 결과 47%에서 크게 10%p나 떨어진 수치이다. 본인에게 종교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17%의 청소년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종교가 없는 청소년의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심지어 개신교 학생들조차도 본인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48%로 절반에도 못 미치지 못했다. 성인의 종교인구는 최근 20년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종교를 가진 비율(28%)은 성인(37%)보다 크게 낮다. 청소년의 종교 필요성 저하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탈종교화를 더욱 가속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교회는 무엇을 염두에 뒀야 할까? 우선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함을 알려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의 가치는 성적 같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성과에 대한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가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삶에서 어떻게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신앙적인 멘토나 상담자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신앙적 관점에서 지혜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단지 청소년과 소통을 잘할 것 같은 교육전도사를 배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청소년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통계’, 2023.05.30.

2) PISA,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2022.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2. 한국 국회의원 연봉 실태(OECD비교)
3. 2023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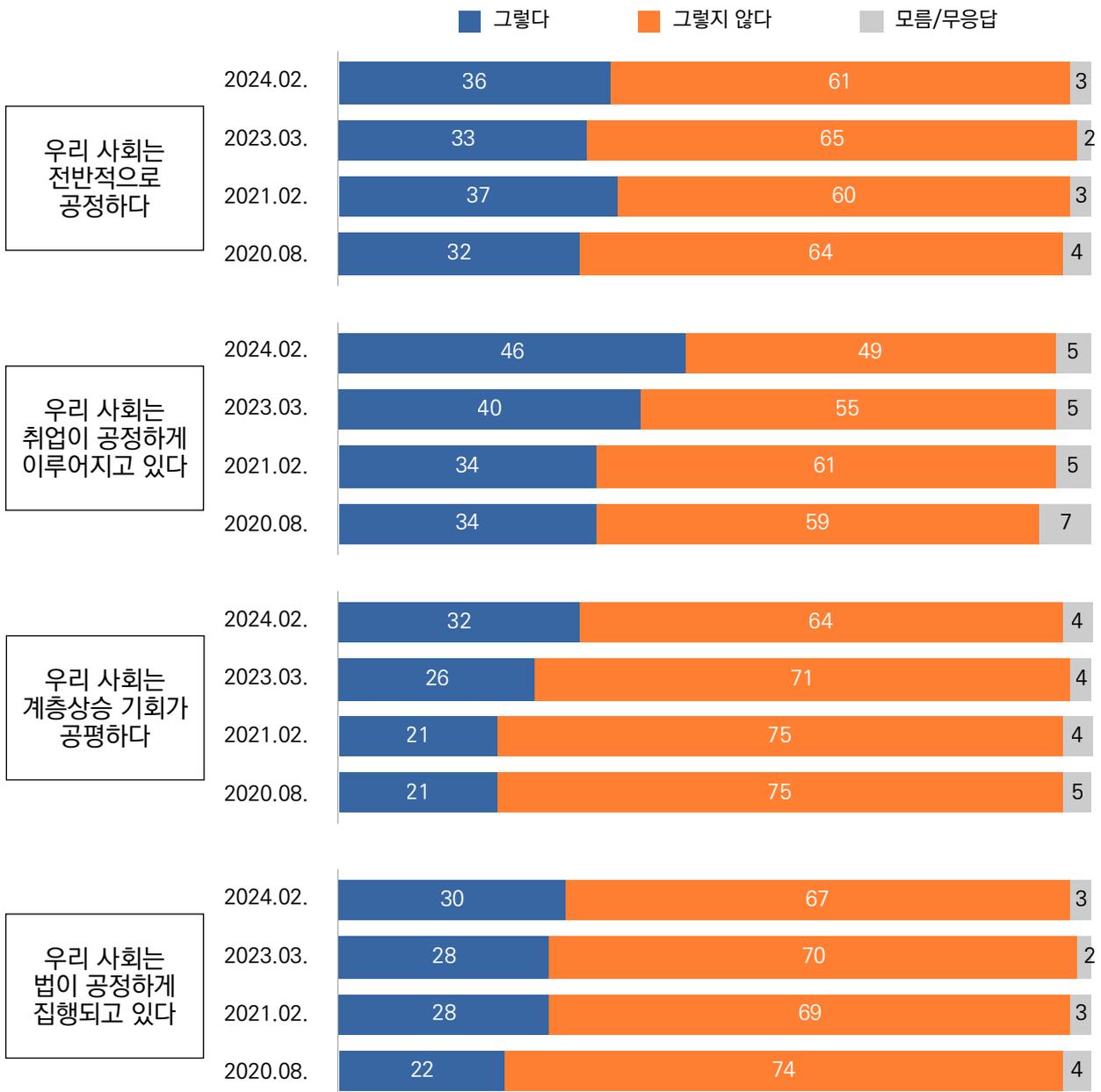


##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 최근 우리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전국지표조사; NBS)가 발표돼 살펴본다. 우리 사회 전반, 취업, 계층상승 기회, 법 집행 등 4개 영역에서의 공정성을 평가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하다'에 36%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6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4개 영역 모두 긍정 평가가 상승하는 추세이나, 긍정 평가율이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고, '계층상승 기회'와 '법의 공정한 집행'은 '부정 응답률'이 긍정률 대비 2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 제116호', 2024.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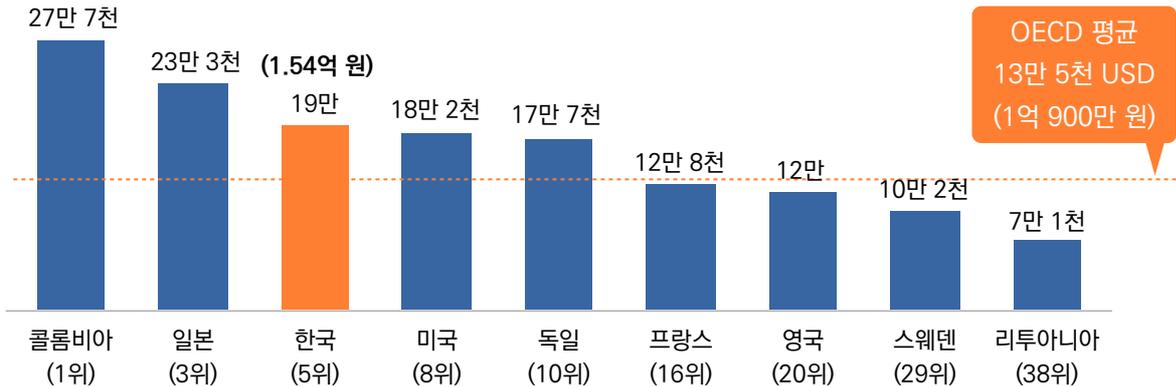
\*4점 척도



## [한국 국회의원 연봉 실태(OECD비교)] 한국 국회의원 보수, OECD국 중 5위!

- 올해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을 OECD 38개국 중 주요국과 비교해 보았다. OECD 38개국 국회의원 1인당 연 평균 보수는 1억 900만 원이었고, 가장 연봉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27만 7천 달러(2억 2,400만 원)였다. '한국'은 19만 달러(1억 5,400만 원)로 OECD국 중 상위권인 5위로 조사됐다.

[그림] OECD 주요국 국회의원 1인당 연 평균 보수\* (USD, PPP\*\*)



※출처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국회의원 팩트체크 ('한국 국회의원 수는 100명이면 충분하다?'), 2023.04.26. ([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Factcheck/OECD/factcheck\\_01.aspx](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Factcheck/OECD/factcheck_01.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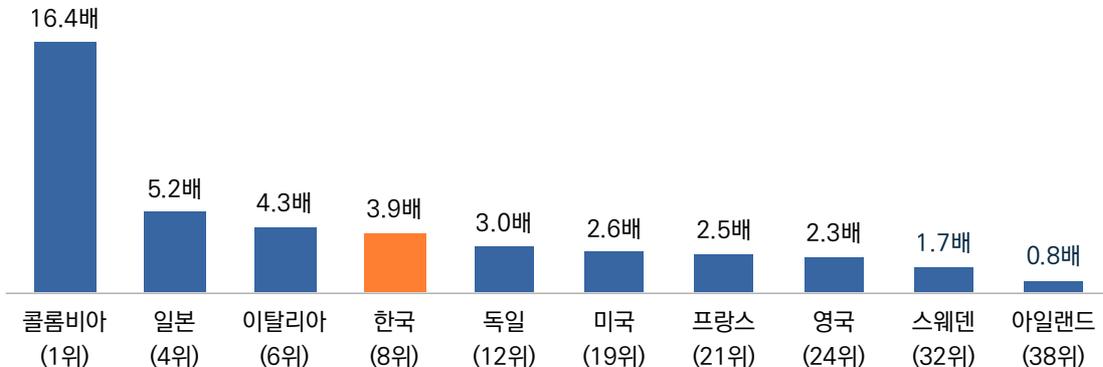
\*연보수는 구매력평가 환율 적용한 미국 달러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지수) :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 산출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해 각 국가별 실제 구매력을 나타낸 것

## 한국 국회의원 보수, 국민 1인당 GDP 대비 4배 더 높아!

- 이번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한국 국회의원 연봉 수준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한국 국회의원의 연평균 보수는 국민 1인당 GDP의 3.9배 수준으로, 상위 8위에 랭크됐고, 콜롬비아가 16.4배로 OECD 국가 중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가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0.8배)로 국회의원 보수가 해당 국가 1인당 GDP에도 못 미쳤다.

[그림] OECD 주요국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연평균 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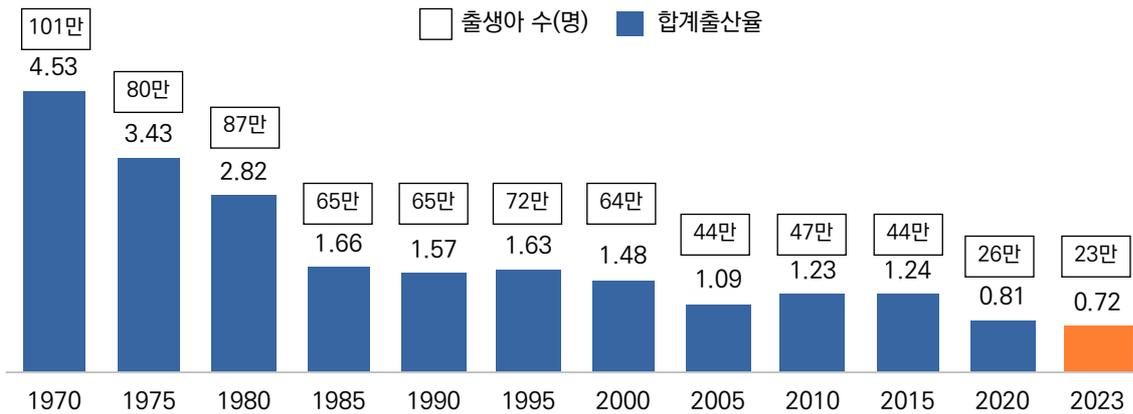
※출처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국회의원 팩트체크 ('한국 국회의원 수는 100명이면 충분하다?'), 2023.04.26. ([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Factcheck/OECD/factcheck\\_01.aspx](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Factcheck/OECD/factcheck_01.aspx))



## [2023 합계출산율]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가 발표됐는데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약 50년 전인 1970년부터 현재까지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을 추적해보니, 1970년 100만 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해 2010년 절반으로 떨어졌고, 반세기가 지난 2023년엔 1/4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으나 1980년에 2명대가 무너진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 이후에는 1명대 미만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그림]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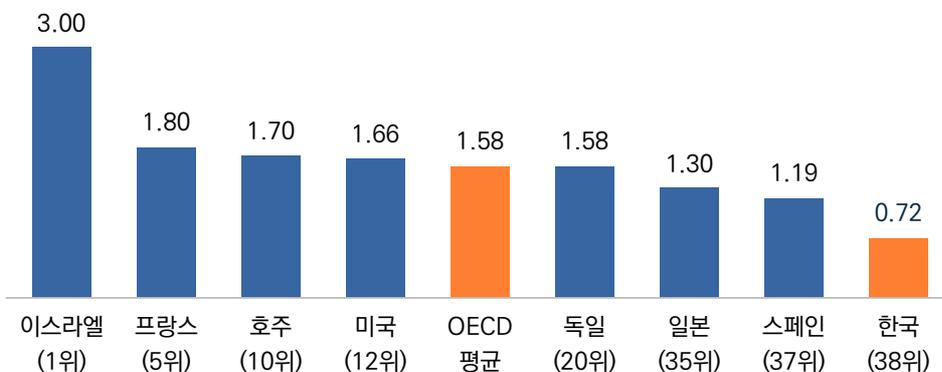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아수, 합계출산율/분기별 인구동향)', 2024.0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한국의 합계출산율, OECD 최하위로 평균의 절반 수준!

- OECD 38개 회원국 대상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았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58명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3.00명),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0.72명)이었다.
- OECD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0.72명으로 유일했고 바로 앞에 랭크된 스페인(37위)과도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OECD 주요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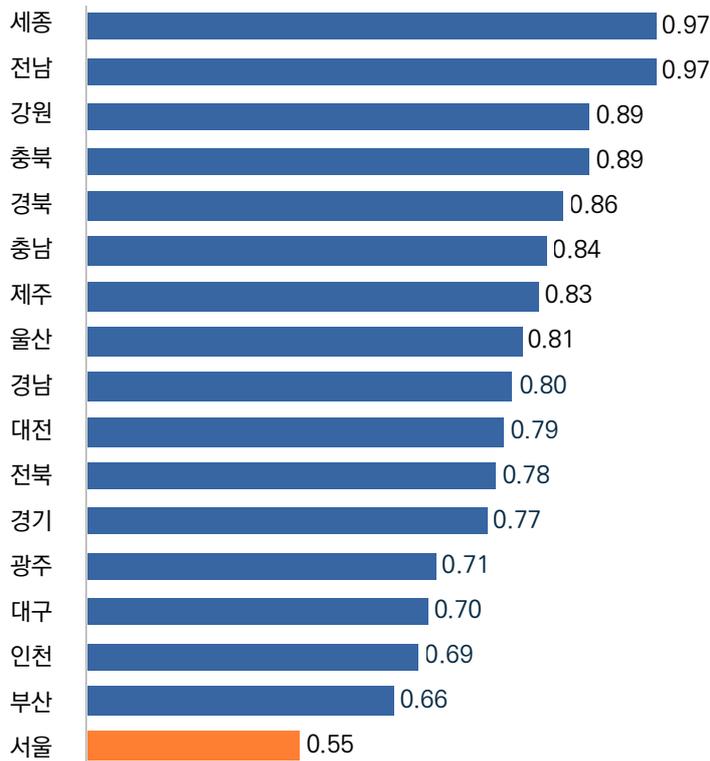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4.02.27.  
 Note) 한국은 2023년, 회원국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은 38개 회원국의 2021년 자료로 산출

## 서울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전국 최저!

- 우리나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1명을 채 넘지 못했고, 최하위는 서울(0.55명), 2위는 부산(0.66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2개의 도시가 차지했다.
-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전남 영광군'이 1.65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도 지역의 출산율이 상위 10위권 중 6개가 포함돼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권 1위는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고, 하위 10위권 중에 서울이 8개를 차지해 서울의 낮은 출산율 실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림] 시도별 합계출산율 (명)



[표]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명)

	상위 10위		하위 10위	
1	전남 영광군	1.65	부산 중구	0.31
2	전남 강진군	1.47	서울 관악구	0.38
3	경북 의성군	1.41	서울 종로구	0.4
4	전북 김제시	1.37	서울 광진구	0.45
5	강원도 인제군	1.36	대구 서구	0.48
6	전남 해남군	1.35	서울 마포구	0.48
7	경북 청송군	1.34	서울 강북구	0.48
8	전북 진안군	1.32	서울 은평구	0.52
9	전북 임실군	1.3	서울 도봉구	0.52
10	강원도 양구군	1.28	서울 양천구	0.53

※출처 :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4.02.27.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76호\(2024년 2월 5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5개 정당별 총선지지 의향 여부

## 사회·일반

### [무자녀 신혼가구 예상한 자녀 1인 양육비는...월평균 140만7천원](#)

연합뉴스\_2024.3.4.

### ["이런 비참함,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거부하는 한국인들](#)

국민일보\_2024.2.29.

### [출산을 첫 '0.6명대' 추락...역대·세계 최저 '셀프 경신'](#)

연합뉴스\_2024.2.28.

### [합계출산율 고작 0.31...전국 261개 시군에서 저출산 1등한 지역은](#)

매일경제\_2024.3.3.

### [혼인 증가에 거는 '합계출산율 반등' 한 가닥 희망](#)

노컷뉴스\_2024.3.3.

### ["혼술족"이 어울려 마시는 경우보다 우울·사회불안 경험 ↑](#)

연합뉴스\_2024.3.2.

### [작년 1인당 육류소비량 60kg로 쌀 넘어...'최애'는 돼지고기](#)

연합뉴스\_2024.3.2.

### [혼인건수 10년새 40% 감소...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

연합뉴스\_2024.3.3.

### [농식품부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만족'"](#)

연합뉴스\_2024.2.28.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여론은?](#)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4.2.27.

### [작년 전국서점 2천484곳...봉화군 등 10곳은 한 곳도 없어](#)

연합뉴스\_2024.2.28.

### ['화장 절벽' 온다... 수요 8만명 늘때 새로 지은 장사시설 2곳분](#)

동아일보\_2024.2.28.

### [韓 과학기술 수준, 中에 첫 추월당해](#)

동아일보\_2024.3.1.

## 청년·청소년

### ["학부모 게임 이해도 높을수록 자녀도 과몰입 경향 낮아"](#)

연합뉴스\_2024.2.28.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내 새끼 지상주의, 특권과 반칙 판치게 해…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조선일보\_2024.3.2.

## 경제 · 기업

[“강남만 올라” 더 벌어진 집값 격차](#)

매일경제\_2024.2.29.

[지난해 실질임금 1.1% 줄었다…'뛰는 물가'에 2년 연속 뒷걸음질](#)

연합뉴스\_2024.2.29.

[대기업 평균 월급 591만원… 중기보다 2배 이상 많아](#)

문화일보\_2024.2.28.

[여성기업 수익성·안정성·활동성 개선…생산성은 감소](#)

경향신문\_2024.2.27.

[기업 67% “올해 신규채용 계획있다”…경력직 선호도 강화](#)

연합뉴스\_2024.3.3.

[직장갑질119 “직장인 여성 40%, 성별 따른 임금차별 경험”](#)

연합뉴스\_2024.3.3.

[“학원비, 월급의 10%만 써라”…자식 때문에 노후 망한다 \[저출산시대자산관리\]](#)

중앙일보\_2024.3.4.

## 건강

[“과민성 대장 증후군, 생활 습관과 관계있다”](#)

연합뉴스\_2024.2.27.

## 기독교 · 종교

[기독교인 73% 범죄자 처벌이 용서보다 중요하다는데…](#)

더미션(국민일보)\_2024.2.27.

[대학 진학뒤 신앙 포기 31%… 교회 “가나안 청년 구하라” 특명](#)

더미션(국민일보)\_2024.2.29.

[기도제목·온라인 관심 일치 7%분… 기도와 다른 일상 사는 1030](#)

더미션(국민일보)\_2024.3.5.

## 기획기사 : [국회의원 특권], 연합뉴스

[①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_2024.2.15.](#)

[②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_2024.2.22.](#)

[③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_2024.3.4.](#)

# 후원

##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랑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움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우륵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대교회, 포함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S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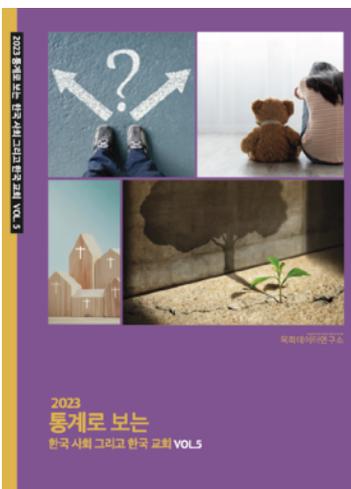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연구소 소식

- 2023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3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5>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자 중 아직 책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02-322-0726)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